

미디어토마토

Step 1.

다양한 매체 환경에 대응할 시스템 요구



세계의 신문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던 세계 유력지들이 독자들 곁으로 바싹 다가서기 위한 변화의 모습 을 보이는 건 이미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제작기술 혁신과 독자 환경의 변화, 특히 신세대 들의 구매력 향상과 영향력의 증대로 시대 변화에 초점을 맞춘 기사와 감각적인 지면이 늘 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기존 '종이 매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 기술의 발전은 정 보의 전달 방식이 다양해지고 제작 방식이 간단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존 매체 접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브랜드 미디어'에서 '콘텐츠 위주의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 하며 공간, 시간 그리고 한정된 정보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의 등장으로. 독자의 구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제작방식과 인력 배치로는 이런 미디어 환경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Step 2.

현재 운용중인 지면 제작의 문제점?



구조가 복잡하며 비효율적이다.

- ▶ 수 억대의 높은 비용. 잦은 오류 발생
- ▶ 구축 기간이 오래 걸림
- ▶ 수 억대의 돈을 주고도 1년 넘게 시스템 안정화 작업

많은 인력과 높은 비용.

- ▶ 편집자 20명, 조판 오퍼레이터 20명 안팎 총 40명 이상의 인력
- ▶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도 높은 비용에 망설임
- ▶ 인력 · 비용 낭비에 긴 시간을 들여 지면 제작

Step 3.

자동조판시스템은 어떻게 다른가?



지면 제작시간 획기적 단축

- ▶ 탬플릿을 활용한 제작시간 단축.
- ▶ 기사/광고/이미지 등 스크립트와 자동 연동으로 편리한 시스템

제작 인력의 대폭 감소

- ▶ 뉴스토마토의 경우, 단 3명의 인력만으로 24면 지면 발행
-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동조판시스템으로 가능!

베테랑 인력 보유

- ▶ 전문 [개발자 집단이 효율적이고 가벼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 ▶ 종합지 출신 수십 년 경력 베테랑 에디터가 직접 탬플릿을 디자인 합니다!

Step 4.

자동조판시스템의 특장점은?

단시간 내 질 높은 신문제작

- ▶ 획기적으로 제작 시간을 단축해 신문의 편집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
- ▶ 다양한 탬플릿은 빠른 지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지면의 질적 향상

저비용 고효율 제작시스템 단기간에 구축

- ▶ 모든 언론사에 적용되는 범용성 높은 제작시스템으로 구축 시간 단축
- ▶ 기존 CTS 시스템 대비 구축비용 최소화

통일된 지면 구축, 다양한 형태로 변형가능

- ▶ 탬플릿을 각 면별로 특성에 맞게 미리 준비해 신문의 전체 포맷을 통일
- ▶ 지면 상황에 따라 손쉽게 응용과 변화 가능

Step 5.

기사 데스킹과 지면제작 시스템 일원화

효율적이고 가벼운 시스템

- ▶ 신문 제작에 꼭 필요한 기능만 탑재해 잡스러운 기능과 불필요한 과정을 걷어냄
- ▶ 경제신문 뉴스토마토에서 지면 제작을 위해 직접 개발. 적용해온 시스템

기사작성과 데스킹, 지면제작의 일원화

▶ 뉴스룸을 통한 기사 데스킹과 지면 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져 효율적인 기사 통제와 지면제작이 이루어 집니다.

기존 프로그램과 쉽게 연동

- ▶ 시중의 편집 프로그램과 연동 가능하며 버그가 거의 없음
- ▶ 손쉬운 활용과 그래픽 제작 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쉬움

▶ 광고를 비롯해 발행 날짜, 호수, 시리즈 연재물 번호 등 자칫 실수하기 쉬운 고정요소 들 자동 생성 Step 6.

미디어토마토

자동조판시스템 도입해야만하는 이유

고품질 신문제작

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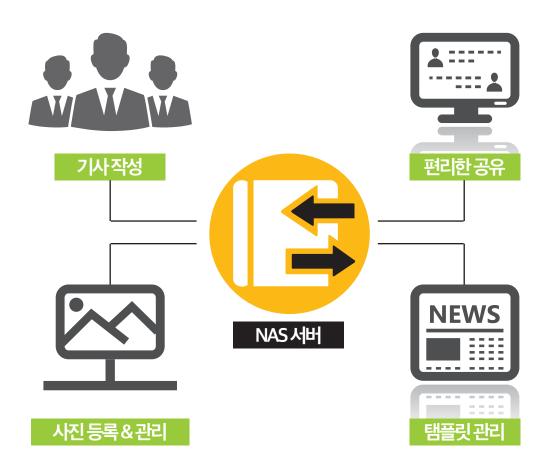
제작시간 단축

최소의 전문인력만으로 단순화로 고품질 신문제작

제작과정의 제작비용 절감 단축

다양한 탬플릿 활용으로 인건비 축소와 조판시간 획기적 Step 7.

NAS 서버를 이용한 편리한 통합 관리! NAS 통합 관리



자동조판 실제 제작 예-1

















자동조판 실제 제작 예-2

















자동조판 실제 제작 예-변형, 응용





뉴스토마토의 자동조판시스템은 신문 제작에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문의/ mito@etomato.com 김희지(02-2128-3342)

편집/ 김치덕 에디터(02-2128-3805, 010-6201-1840)

시스템/ 민남기 부장(02-2128-3879, 010-2738-0077)

미디어토마토